

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 연구자료의 문제

차 선 근 *

■ 국문요약

한국 신종교의 특정 주제를 개괄할 때, 특정한 하나의 교단 사례를 보편화하여 기술하는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다. 증산계 종교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A교단의 자료로써 B교단의 종교현상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신종교 또는 증산계 교단에 대한 기술은, 있는 그대로의 종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다. 한국 신종교 또는 증산계 종교에 대한 개괄적 기술은, 그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별 교단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먼저 살핀 후에 그 결과물을 종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순진리회가 다른 증산계 교단과는 다른 차이(differences)를 가짐을 지적하고, 대순진리회의 사상 즉 대순사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이 대순진리회를 기술할 때 대순진리회의 1차 자료 대신 증산계 교단의 다른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조직·의례·수행이 다른 증산계 교단들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조정산-박우당으로 이어지는 인적 계보 속에서 사상체계를 정비했다. 그 결과물인 대순사상은 다른 증산계 교단들의 사상과 일정한 차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부소장, E-mail: chasungun@hanmail.net

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증산계 각 교단이 증산에 대한 신앙을 공통으로 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그 모두를 같은 종교라고 단정한다면, 개별 교단들의 고유성은 무시되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묻히게 된다. 개별 교단의 입장에는 연구자의 이런 태도가 폭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어서 학술적이지도 않다.

증산계 개별 교단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그 자료의 수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개별 교단의 고유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차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등한시하는 자세, 저 교단의 자료를 가지고 이 교단을 설명하려는 자세, 남이 생산한 2차 자료만 활용하려는 자세는 과거 안락의자 인류학이 받았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주제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차이, 다양성, 대순사상, 증산사상, 1차 자료

- I. 신종교와 신종교들, 증산계 종교와 증산계 종교들
- II. 대순사상의 정체성
- III. 대순사상의 1차 자료 문제
- IV. 닫는 글

I. 신종교와 신종교들, 증산계 종교와 증산계 종교들

기독교 안에는 로마가톨릭을 비롯하여 정교회, 프로테스탄트교회 등 다양한 분파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톨릭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나 하느님을 낳았으며, 평생 동정이었고, 지상에서 생애를 마친 후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 올려진[蒙召昇天: 被昇天] 성모(聖母)라고 추앙한다. 정교회도 이 전승을 인정하는 편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어느 연구자가 ‘기독교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라고 획일화하여 기술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성모 공경을 부정하는 대다수의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즉각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¹⁾ 그 연구자는 특정한 하나의 교단 사례로써 전체 교단들을 일반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구대상을 왜곡한 채 진실과 유리된 자기만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이상하게도 한국 신종교 연구에서는 종종 벌어진다. 이를테면 증산계 교단들의 교리가 해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면

1) Yoon Yongbok · Massimo Introvigne, “Problems in Researching Korean New Religions: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The Journal of CESNUR* 2, Issue 5 (Sep.-Oct. 2018): 92.

서 한국의 신종교는 해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고 말한다거나, 증산계 교단들 가운데 하나인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이 구천상제라는 이유로 증산계 신종교는 구천상제를 신앙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기술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²⁾

최근에도 어느 책을 읽어가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접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을 받은 천도교, 증산교, 정역, 대종교, 원불교, 갯정유도 등의 민족종교들은 서세를 극복하고자 보편적인 대안문화를 만들고자 새로운 동서합일의 도덕문명을 제시하고 있다. … 요컨대, 동서의 상극적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도덕문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의 정복이 아니라 해원상생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동서합덕(東西合德)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³⁾

이 글귀를 적은 이는 한국 신종교가 인류를 구원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신종교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그의 말 가운데 천도교, 증산교, 정역, 대종교, 원불교, 갯정유도가 공통적으로 동서합덕을 주창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서합덕의 기반은 해원상생 원리라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서학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던 천도교의 교조 최수운이 서양과의 합덕을 추진했다고 말하기는 무리이고, 천도교나 정역 등에는 해원상생이라고 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제한적인 사례로써 전체를 일반화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다음과 같다. 노길명, 「한국 신흥종교운동의 사상적 특성」, 『종교·신학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 신학연구소, 1989);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12, pp.71-72; 류병덕,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 현황」, 『한국종교사연구』 5 (1996), pp.138-139; 노길명, 「한국 근·현대사와 민족종교운동」, 『한국민족종교운동사』 (서울: 민족종교협의회, 2003), pp.64-66; 김홍철, 「근·현대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고찰」, 『한국종교』 35 (2012), pp.12-39;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소고」, 『한국종교』 35 (2012), pp.44-55; 윤승용, 「한국의 근대 신종교,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착과 그 한계」, 『종교문화비평』 22 (2012), pp.173-175.

3) 윤승용, 「서세동점과 동세서점의 차이」, 한국종교문화연구소(편), 『종교문화의 안과 밖』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21), p.68.

합덕이나 해원상생은 특정 한두 교단의 고유한 종교용어다. 이를 간과하고 한두 교단의 특수 사례를 전체 신종교로 보편화하여 기술하는 것을 과연 학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은 기독교를 성모 인도하심의 은총을 받는 종교라고 기술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반발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신종교’와 ‘신종교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증산계 ‘종교’와 증산계 ‘종교들’을 구분하지 않을 때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J. Z. 스미스의 평소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상황과 차이를 무시하고, 위치설정의 지도 단 하나만 가지고 모든 영토를 설명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오류들이다.

예전에 필자는 한국 신종교 또는 증산계 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성급하게 보편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한국종교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종교의 개벽·이상세계·신앙대상·실천·교리를 서술할 때는 개별 교단들의 입장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논문을 두 차례에 걸쳐 투고·게재한 바 있다.⁴⁾ 이 논문들이 좋은 심사평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심사자는 신종교 전체를 묶어서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것만’ 학술적인 태도이며, 개별 교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각론은 호교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투고된 논문의 수가 부족한 학회의 사정으로 부득불 게재를 허락한다는 심사평을 보내왔다. 당시에든 그랬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한국 신종교의 총체적인 개괄 모습만 다루는 것이 학자의 올바른 학술적 태도라는 그 심사자의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다. 신종교를 일반화하여 말하는 일이 필요하기는 하나, 꼼꼼한 개별 교단 자료 수집과 분석이 없다면 사실상 그러한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종교의 특정 주제를 개괄할 때 특정 교단의 특수 사례를 보편화하여 기술하는 관행은 아직도 한국 학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엘리야

4)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차선근, 「증산계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데 방식의 이런 제국주의적 획일화 관행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관행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개괄 작업은 그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별 교단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먼저 살핀 후에(모두를 살필 수 없다는 한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물을 종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개별 교단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 그것은 개별 교단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부른 일반화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의 관심 주제인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교단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대순진리회를 기술할 때 대순진리회의 1차 자료 대신 증산계 교단의 다른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것은 증산계 종교와 증산계 종교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발견된다. 2018년 브릴 출판사가 발간한 『동아시아의 신종교 안내서(*Handbook of East Asian New Religious Movements*)』에 실린 존 요르젠슨(John Jorgensen)의 ‘대순진리회(Taesunjillihoe⁵⁾)’가 하나의 사례다. 여기에서 그는 대순진리회를 기술할 때 9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대순진리회의 1차 자료는 2종에 불과하다. 그 2종의 자료조차도 인용된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요르젠슨 본인이 직접 찾아 조사하지 않고 다른 자료에 인용된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이다. 나머지 7종의 자료는 대순진리회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교단들이 만든 것들인데, 요르젠슨은 이 자료들의 가치 평가적인 해석과 주장을 차용해 대순진리회를 기술하고 있다.⁶⁾

5) 대순진리회의 영문 홈페이지(<http://eng.daesoon.org>)에 의하면 교단의 영문 표기는 ‘Taesunjillihoe’가 아니라 ‘Daesoon Jinrihoe’다.

6) John Jorgensen, “Taesunjillihoe,” In *Handbook of East Asian New Religious Movements*, ed. by Lukas Pokorny and Franz Winter (Leiden: Brill, 2018), 360-381; Yoon Yongbok · Massimo Introvigne, *op. cit.*, pp.84-107.

대순진리회가 아닌 다른 증산계 교단의 자료를 사용하여 대순진리회를 설명하는 이런 시도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조직·의례·수행이 다른 증산계 교단들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글의 서두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자료·해석·(때로는 가치 평가적인)주장으로써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오류와 같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1차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증산계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대순진리회는 자신을 다른 증산계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게 드러내려고 하는가? 다음 장에서 이를 짚어보자.

II. 대순사상의 정체성

1. 대순사상의 개념

『서경』 「태서」에는 “다음 날 (주나라) 무왕이 육군[六軍: 천자의 군대]을 크게 순시하고[大巡] 군사들에게 분명하게 맹세하였다(時厥明, 王乃大巡六師, 明誓衆士).”라는 구절이 있다. 이때 보이는 ‘대순(大巡)’이라는 용어는 ‘크게 살피며 다닌다’는 뜻이다. 대순진리회는 이 ‘대순’을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가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구제해 달라고 신명들이 하소연하자, 지고한 신인 구천상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접 삼계를 돌며 살폈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지고신은 대순한 끝에 동방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한국 땅에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나 상생대도(相生大道)를 새롭게 열고 천지공사로써 세상을 구제할 방책[眞理]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

세계관의 기본 설정이자 신앙이다.⁷⁾

구천상제가 인간 증산으로 활동하면서 보인 행적과 가르침은 대순진리회의 사상, 곧 대순사상을 구성한다. 그러나 대순사상은 구천상제의 행적 하나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가르침을 유지(遺志)라고 부르고, 그것이 계시를 통해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에게 전해졌다고 믿는다. 정산은 유지를 체계화하여 유법(遺法=眞法)을 만들었고,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유명(遺命)으로 도전(都典) 박우당(朴牛堂, 1917~1996)에게 계승시켰다. 우당은 그 유법을 펴면서 유훈(遺訓)을 남겼다. 증산-정산-우당의 인적 계보는 종통(宗統)으로 불리고, 이를 통해서 내려온 유지-유명-유법이 대순사상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이란 구천상제인 증산의 가르침을 정산이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우당에게 계승시켰던 일련의 사상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⁸⁾

이러한 개념 규정은 두 개의 신앙, 즉 증산이 구천상제라는 신앙과 증산-정산-우당의 종통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증산의 행적과 가르침이 정산에 의해 해석되고 우당에 의해 계승된 것이 대순사상임을 강조한다.⁹⁾ 달리 말하자면 정산과 우당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표출된 증산의 사상은 대순사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사상을 증산계 교단들의 사상과 구분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증산을 신앙하는 교단들이 많다는 현실 속에서 대순진리회가 그들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배경이 있다. 대순사상이라

7) 대순진리회가 인간 증산을 지고한 신으로 신앙하는 이유는, 삼계를 개벽하고 우주의 법칙과 도수를 재조정하는 천지공사는 지고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313; 대순진리회 교무부, 「인간이신 증산을 상제님으로 믿는 이유」, 『대순회보』 74 (2007), pp.14-15.

8)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13), p.80; 김방룡, 「증산사상의 연구 동향과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 『대순사상논총』 20 (2009), p.25.

9)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대순회보』 109 (2010), p.102.

는 용어의 선택¹⁰⁾은, 증산계 교단들의 사상이 흔히 증산사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증산계 교단의 일부 혹은 그 아류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일종의 호교론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증산계 교단들의 증산에 대한 해석, 신위, 교리와 그 해설, 수행 방법, 의례, 경전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러하기에 대순진리회의 사상이 다른 증산계 교단들의 사상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¹¹⁾ 그 차이를 무시하고 호교론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교단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폭력적 시선일 수 있다.

2. 증산사상과 대순사상의 관계

현재 대순사상이라는 용어의 확산은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진대학교의 대순사상학술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단체는 1996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39차례에 걸쳐 『대순사상논총』을 발간하였다.¹²⁾ 학술 단체 이름이나 논문집 제목에서 보듯 이들이 내세우는 용어는 증산사상이 아니라 대순사상이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은 증산사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김방룡은 광의의 의미로서 “증산 사후 생겨난 모든 증산계 종단의 사상을 통틀어 증산사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한다.¹³⁾ 그리고 대순사상을 증산사상 속에서 논할지, 아니면 증산사상을 배제하고 신종교 안에서 논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물론 그는 대순사상을 증

10) ‘대순사상’이라는 용어의 사용 실태와 과정은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4-5 참조.

11)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참조.

12) 『대순사상논총』은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2019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대진대학교의 또 다른 부설기관이었던 대진학술원도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순진리학술논총』을 발행한 바 있다.

13) 김방룡, 앞의 글, p.26.

산사상의 하위 범주 속에서 논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피력한다.¹⁴⁾

그가 말하는 증산사상의 넓은 정의를 기준으로 계통을 그려본다면 대순사상의 좌표점은 증산사상의 하위에 놓인다. 대순사상은 증산사상의 하위로서 논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증산사상은 그가 말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순사상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증산사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다. 증산사상이 학계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배용덕이 창설한 증산진법회의 부설 연구기관인 증산사상연구회의 역할이 컸다. 이 단체는 1975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증산사상연구』를 발행함으로써 증산사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이때 알려진 증산사상이란 단군을 강조하는 삼단신앙(三段信仰)을 반영한 것이 주류였다.

삼단신앙은 해방 후에 증산교단통정원(甌山敎團統正院)이 만든 것이다. 증산계 교단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 해산을 당했다가, 해방 후인 1949년 증산교본부의 이상호가 주동하여 17개 증산계 교단들을 모아 류동열을 대표로 추대하고 설립한 단체가 증산교단통정원이다. 이들은 민족의 구심점으로 단군을 설정하고, 단군의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 수운의 사상이며, 증산은 단군과 수운의 사상을 이어받아 해원과 상생, 천지공사 사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단군-수운-증산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곧 삼단신앙이다. 증산은 단군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남긴 적이 없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증산계 교단들도 단군과 그 사상을 신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산교단통정원의 이 교리 정립은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단군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4) 같은 글, p.27, p.63.

15) 차선근, 「증산계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pp.79-82; 차선근, 「대

대다수의 증산계 교단들은 증산교단통정원이 발명해낸 삼단신앙을 받아들였다. 배용덕의 증산진법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배용덕이 주도했던 『증산사상연구』에는 삼단신앙의 흔적이 남게 되었고, 그 맥락 속에서 증산사상의 해설이 이루어졌다. 학계에 알려져 왔던 증산사상의 실체가 증산교단통정원의 삼단신앙을 토대로 하고 그 사상의 연원을 단군에 둔 것이라면, 삼단신앙을 수용하지 않는 증산계 교단의 입장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 학계에서 인식해 왔던 증산사상은 증산계 교단 모두의 사상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전신은 1925년에 창도된 무극도다. 무극도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해산을 당하였고 해방 후에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증산교단통정원의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의 삼단신앙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극도가 1950년에 태극도로 교명을 변경하고 1969년에 대순진리회 창설을 통하여 조직을 새로 개편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순진리회는 단군을 국조이자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하지만, 증산교단통정원과 같이 단군을 신앙과 사상의 연원으로 보지는 않는다.¹⁶⁾ 필자는 이미 이 사실을 지적하고 단군사상이 보여주는 서사구조와 모티프(천신 하강, 홍익인간, 신시, 재세이화, 인간의 神化 혹은 聖化)가 대순사상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¹⁷⁾

증산을 지고한 신 구천상제로 신앙하는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는, 증산이 단군과 수운의 사상을 계승했다는 삼단신앙을 수용할 수 없다. 지고신이 인간, 혹은 자신보다 하위의 존재에게 그 신앙과 사상의 연원을 두어야 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앙 대상의 위상 문제

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31 (2018), pp.204-206.

16) 대순진리회가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대순 달력’에는 단기(檀紀)가 등장하고, 여주본부도장 포정문에는 단군이 창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스승이자 제왕으로 적은 글씨가 있다. 차선근,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pp.206-207 참조.

17) 같은 글 참조.

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예수의 신성(神性)에 대한 해석 차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대순사상과 증산사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각이 적용되어야 한다. 증산사상은 김방룡이 말한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증산교단통정원의 삼단신앙으로 포장된 협의의 개념으로 알려져 왔고, 대순사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정산의 관점이 반영된 해석과 체계화 및 우당의 계승을 거친 사상체계로 알려져 왔던 것이 현실이라면, 그 양자를 동등한 범주 내에서 혹은 대순사상을 증산사상의 하위 범주로 가져가서 논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결국 삼단신앙이라는 경계가 뚜렷하게 그어져 있는 한, 증산사상은 증산사상으로, 대순사상은 대순사상으로 각각 논의하는 것이 옳다.

정리하자면 해방 이후 증산교단통정원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증산계 교단은 삼단신앙을 수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증산사상이라고 불려왔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는 삼단신앙을 수용하지 않았다. 증산의 인신강세나 상생대도, 해원상생의 가르침이 유일무이한 미증유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이,¹⁸⁾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¹⁹⁾ 그렇다면 대순사상을 증산사상의 하위 범주로 놓아서 논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해야 한다. 증산사상이 증산계 교단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존재한다면 대순사상을 그 하위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당하나, 현실은 증산사상이 삼단신앙의 맥락 속에서 표현되어왔기에 삼단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대순사상은 그 안에 담길 수 없다는 말이다.

18) 『대순진리회요람』(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p.8, pp.10-11.

19) 차선근,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p.206.

Ⅲ. 대순사상의 1차 자료 문제

대순진리회를 연구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의 1차 자료(primary sources)를 활용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소 놀랍게도 이 인식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대순사상학술원은 외부 학자들에게 논문 작성을 의뢰할 때 종종 이 사실을 강조하곤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순전경(大巡典經)』, 그리고 태극도 감천도장에서 발행한 『전경』(「태극전경」)이다. 이 자료들은 대순진리회의 1차 자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대순진리회를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오해를 일으킨다.

1. 『대순전경』은 대순진리회 경전이 아니다

대순진리회의 경전은 『전경(典經)』이다. 『전경』은 1974년 초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3판이 발행되었다. 대순진리회를 기술하기 위한 경전은 당연히 『전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증산의 언행을 살필 때 『대순전경』을 인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순전경』은 증산계 교단 최초의 경전이며, 그 뒤에 등장한 증산계 교단 경전들은 『대순전경』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대순전경』은 대순진리회의 경전이 아니라 증산교본부의 경전이다. 또 『대순전경』의 간행 상황은 그 경전이 증산계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대순전경』의 저자는 이상호(李祥昊, 1888~1967)와 그의 동생 이정립(李正立, 1895~1968)이다. 『대순전경』의 출판 사항에는 저자가 이상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상호와 이정립 두 사람이

20) 윤승용, 「신종교의 경전에 대한 개설」, 『신종교연구』 16 (2007), pp.24-25.

저술에 참여했다. 배용덕에 의하면 판권을 이상호가 가지고, 집필은 이정립이 주도했다고 한다.²¹⁾ 그들 형제는 증산 문하에 있었던 친자 종도(親炙宗徒)²²⁾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산의 언행을 직접 접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증산 사후 6년이 지난 1915년 무렵에 증산계 초기 교단인 태을교에 가입했고, 증산의 종도였던 차경석과 김형렬에게 증산의 행적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여러 종도를 찾아다니며 증언을 채록했다. 그 최초 결과물이 『증산천사공사기(甌山天師公事記)』(1926)이며, 그 내용이 더 보강되어 발행된 것이 『대순전경』(초판, 1929)이다.²³⁾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했을 뿐, 종도들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지도, 채록했던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상호는 종도들의 증언이 담긴 수십 권의 수첩과 노트들을 구식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운 채 보관했는데, 이 자료들은 1967년 1월 17일(음력 병오년 12월 7일)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이상호는 사망하였고,²⁴⁾ 이정립은 그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이로써 『대순전경』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확인할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다.

구술 수집과 그것의 기록·윤문 작업에는 전달자와 기록자의 주관적 견해와 해석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록이 사적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불교 경전도 몇 차례의 결집(Samgiti)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상호 형제는 『대순전경』을 출판할 때 공개와 검증을 통해 신빙성과 설득력을 얻는 작업을 하지

21) 홍범초,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3 (1995), pp.59-60; 배용덕·임영창, 『증산사상연구 10: 증산신학개론(중·하)』(서울: 태광문화사, 1984), p.59.

22) 종도란 증산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특히 친자종도는 증산을 직접 대면했던 종도를 이르는 말이다.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24명, 혹은 28명, 64명 등으로 전해진다. 홍범초, 「도조(道祖) 증산대성(甌山大聖)의 생애」, 『월간 천지공사』 1 (1988), p.11.

23) 홍범초,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 pp.59-66.

24) 같은 글, p.71.

않았다. 『대순전경』이 이상호 형제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전이 이상호가 설립한 동화교(東華敎) 혹은 증산교본부의 입장만을 반영했음을 말한다. 이것은 『대순전경』이 증산계 교단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을 안았음을 의미한다. 배용덕도 『대순전경』 출판에 이상호 형제만 간여한 데다가, 특히 증산계 교단 가운데 하나인 증산교본부의 명의로 발간함으로써 증산계 교단 전체의 공인 서적이 아닌 개인 저서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²⁵⁾

증산계 교단들이 『대순전경』 대신 자신들만의 경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까닭은 『대순전경』에 공공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단마다 증산에 대한 신성성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증산이 천지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인 1901년에 대원사에서 시행한 49일 공부 해석 문제다. 『대순전경』은 증산이 이 공부를 통해서 대각(大覺)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자각하게 되어 비로소 신성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기술한다.²⁶⁾ 이것을 읽은 어느 연구자는 “증산은 자신이 상제이며 불(佛)이며 예수와 같은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생이지지(生而知之)를 못하여 다년간의 구도 끝에 모악산 대원사에서 천지의 대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라는 비평을 단 적이 있다.²⁷⁾ 『대순전경』의 기술은 이상호 형제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증산계 모든 교단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²⁸⁾ 예를 들어 대순진리회는 증산이 원래 구천의 지고신으로서 신성한 존재였으며, 그의 대원사 공부는 모르는 것을 익히거나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신명을 심판하고 상생대도를 열기 위한 모종의 종교적 행위였던 것으로 설명한다.²⁹⁾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

25) 배용덕·임영창, 앞의 책, p.63.

26)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p.19.

27) 이강오, 「한국 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교장생」,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도교와 한국사상』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8), p.179.

28)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pp.88-107 참조.

29) 차선근, 「증산계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pp.62-64.

끄는 듯한 그 연구자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산의 대원사 공부 해석 차이가 보여주는 신앙 대상의 신성성 문제, 그리고 그것의 경전화(經典化) 작업은 단순하고 소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사안이다. 무함마드 만평이 부른 테러 사건들³⁰⁾과 최근의 『원불교전서』 개정판 폐기 사태³¹⁾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증산계 교단의 각 경전에는 『대순전경』과 공유하는 내용도 있으나, 증산의 신성성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하고, 서술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며 일부 내용이 변형 혹은 삭제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내용이 보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증산의 언행과 사상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²⁾ 그러므로 증산교 본부를 기술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경전인 『대순전경』을, 대순진리회를 기술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경전인 『전경』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

2. 『진경』(「태극진경」)은 대순진리회 경전이 아니다

혹자는 정산의 언행을 기술할 때 「태극진경」(또는 그것을 풀어서 적은 『조정산 전기』)을 사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태극진경」은 정산의 일대기를 기록했지만 태극도 감천도장에서 만든 것으로서 대순진리회의 경전은 아니다. 대순진리회는 『태극진경』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서적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를 살피려면 1968년 교단의 분류

30) 2005년 덴마크의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Jyllands-Posten)>에는 무함마드가 머리에 폭탄을 얹은 만평이 실렸다. 이 만평은 무슬림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항의를 받았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는 이 만평을 2006년과 2015년에 다시 게재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주간지 본사에 난입하여 총격 테러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에는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무슬림에 의해 참수당했다.

31) 2021년 원불교에서 44년 만에 『원불교전서』 개정판을 내었다가 오탈자·윤문 문제와 목우십도송(牧牛十圖頌) 및 교헌 편집 실수 문제를 지적받고 경전이 전량 회수·폐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서감수위원, 교화부원장, 교정원장, 감찰원장 등 업무 관련자들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았다.

32) 자세한 내용은 차선근, 「증산계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pp.57-95 참조.

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산은 1925년에 정읍에서 무극도를 창도하여 이끌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하자, 해방 후에 부산에서 다시 무극도를 부활시켰다. 1950년에는 교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었고 1958년에 화천하면서 태극도의 간부 전원을 모아놓은 뒤 우당에게 종통을 계승하도록 하고 종단의 운영을 맡겼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우당은 부산 감천에서 태극도를 이끌었다.³³⁾ 그때 교단의 교리를 정리한 자료들이 여러 개 발간되었다. 특히 『선도진경(宣道眞經)』은 오늘날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진경』의 모태가 된 경전이였다.

1967년이 되면 태극도의 몇몇 간부들이 우당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갈등은 우당이 신문물을 받아들여 도인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하는 등 생활 문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자, 보수적이었던 태극도 간부들이 이에 불만을 품었던 데서부터 출발했다.³⁴⁾ 이들은 교단을 운영할 권리가 우당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다. 이를 수습하기 어려웠던 우당은 1968년에 태극도 감천도장을 떠나 서울 중곡동에 도장을 새로 설립하고 조직을 개편했다.³⁵⁾ 그리고 1972년에는 교단의 수행을 정리한 『의식』, 1974년에는 새로운 경전인 『진경』을 간행하도록 지시했다.

감천도장의 수도인 가운데는 우당을 따라 대순진리회로 옮겨 간 이들도 있었고, 감천의 태극도장에 남은 이들도 있었다. 남은 이들은 우당에 반대하는 세력이었던 만큼 우당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그들은 정산이 정해놓은 교리도 변경했다. 1987년 새로운 경전인 『진경전서』의 출판은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진경전서』는 1989년에 윤문을 거쳐 『진경』으로 재출판되었다. 이 서적들의 전편은

33)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상생의 길』 4 (2016), pp.13-20 참조.

3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집, 『훈시』(미발행), 임신(1992)년 1월 5일(양력 1992.2.8).

35)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p.20-30.

증산의 일대기를 기록한 「무극진경」, 후편은 정산의 행적을 기록한 「태극진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극진경」은 ‘증산이 무극을 주재하는 무극주(無極主)’라는 관점을, 「태극진경」은 ‘정산이 태극을 주재하는 태극주(太極主)’라는 관점을 각각 기초로 한다. 이것은 태극을 주재하는 존재가 증산이라고 했던 정산의 가르침과는 다르다.³⁶⁾ 이 때문에 대순진리회는 1968년 우당이 감천도장에서 나온 이후에 그곳에서 출판되었던 자료들, 특히 「태극진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태극진경」은 바뀐 교리 외에도 정산의 행적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는 상황이다.³⁷⁾

정리하자면 대순진리회의 경전은 『전경』이다. 「태극진경」은 1974년에 간행된 『전경』보다 13년 늦게 나온 『진경전서』(『진경』은 15년 늦음)에 실린 것으로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우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서적이다. 또 정산의 원래 가르침과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의 정확성을 대순진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증산-정산-우당의 계보에서 벗어나 출판된 「태극진경」은 대순사상을 구성하는 1차 자료가 될 수 없다.

3. 대순사상을 구성하는 자료들

그렇다면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데 활용 가능한 자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증산-정산-우당의 인적 계보 속에서, 그리고 무극도-태극도-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교단의 흐름 속에서 1차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36)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pp.110-112;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계관 연구 서설 (I)」,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128-131.

37) 예를 들면 정산이 만주로 망명간 장소와 귀국 상황, 무극도 당시의 조직, 문공신의 강도사건 등이다.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pp.112-116 참조.

<표 1> 우당이 감천도장에서 태극도를 이끌고 있을 때 출판된 자료 목록

간행년	자료명	간행 명의	비 고
1956	『태극도 통감』	우당 ³⁸⁾	교단 안내서. 필사본과 인쇄본 두 종류가 있음
1963	『규정』	태극도	조직 구성과 의식을 소개함
1963	『도현』	태극도	교단의 헌법
1963	『수도요람』	태극도 교회부	교단의 취지와 연혁, 교리를 소개함
1965	『선도진경』	태극도 교회부	교단의 경전
1966	『수도규정』	태극도	공부 등 교단의 실천을 소개함
1966	『태극도 안내서』	태극도 교회부	교단 안내서
1967	『선도진경』 2판	태극도 교회부	교단 경전
1967	『채지가』	태극도 교회부	구전되는 가사 모음집
1967	『태극도 월보』	태극도 교회부	교단 월간지 ³⁹⁾

<표 2> 우당이 대순진리회를 창설하고 조직을 개편한 이후 발행한 자료 목록
(개정판 발행은 생략)

간행년	자료명	간행 명의	비 고
1969 ⁴⁰⁾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단 안내서
1972	『의식』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단의 수행을 정리함
1972	『도현』	대순진리회	교단의 헌법
1974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단 경전
1978	『채지가』	대순진리회 교무부	구전되는 가사 모음집
1982	『대순성적도해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증산과 정산의 행적 그림 해설서
1984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우당 훈시

38) 발행인이 도인 대표 박경호(朴景浩)로 적혀 있는데, 이 이름은 우당의 원명(原名)이다.

39) 『태극도 월보』는 우당을 교단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논조로 출발했으나, 우당이 감천도장을 떠난 이후에는 그를 비난하는 논조로 급격히 바뀌었다.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태극도 월보』는 우당이 감천도장에 머물고 있던 시절에 발행된 1967년 1월부터 1968년 6월까지이다.

40) 1969년에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4년에 출판된 『전경』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전경』 출판 이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교단 내부의 각종 문건, 이를테면 도전의 훈시 자료, 교단 내 부서의 업무일지(예를 들어 총무부 업무 일지), 일기(『성재일지』 등) 등도 1차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미출간 상태로 남아있어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교단 명의로 발간된 각종 교리 해설서, 입문서, 안내서도 있다. 이 자료들은 <표 2>의 1차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하지만, 신앙에 바탕을 교단 내부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대순사상 연구 자료 목록(국문판, 개정판 발행은 생략)

간행년	자료명	간행 명의	비 고
1975	『포덕교화 기본원리』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리 해설서
1976	『증산종교사상』 ⁴¹⁾ (『대순종교사상』)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교리 해설서. 장병길 저술
1978	『전경 색인집』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의 색인집
1979	『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안종운이 증산의 생애를, 장병길이 증산의 사상을 각각 저술함
1983	『대순회보』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호와 2호는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명의로, 3호부터는 대순진리회 교무부 명의로 발행됨
1983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논문집
1987	『대순진리 입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교단의 실천을 적은 장병길의 저술
1987	『대순진리 강화 I』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교단 교리 해설서. 장병길 저술
1989	『대순진리 강화 II』 ⁴²⁾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교단 교리 해설서. 장병길 저술
1989	『친지공사론』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교단 교리 해설서. 장병길 저술
1998	『대순사상의 이해』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진대학교 교재

1999 ⁴³⁾	『중단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단 화보집
2000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교리 해설서. 최동희·이경원 공저
2000	『상생윤리학』	대순사상학술원	교리 해설서. 안중운 저술
2003	『포덕교화 기본원리 II』	대순진리회 교무부	교리 해설서
2003	『대순소식』	대순진리회 기획부	교단 월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7차례 발행
2003	『교화모음집』	대진대학교 교정원	교리 해설서
2004	『상생의 길』	대순진리회 교무부	연구 글모음 집, 2021년까지 5회 발행
2015	『훈시』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에 게재된 우당의 훈시 15편을 묶음
2016	『대원중』	대순진리회 교무부	연구 글모음 집. 2021년까지 2회 발행

2009년 이후에는 교단의 자료들이 영문·중문·일문으로 번역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들은 <표 4>와 같다.

<표 4> 대순사상 연구 자료 목록 (영문·중문·일문판)
(개정판 발행은 생략)

간행년	자료명	간행 명의	비 고
2009	An Introduction to Daesoonjinrihoe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⁴⁴⁾	『대순진리회 요람』 영문 번역판
2010	典经	大巡宗教文化研究所	『전경』 중문(간체) 번역판
2010	大巡指针	大巡宗教文化研究所	『대순지침』 중문(간체) 번역판

41) 『증산종교사상』은 장병길 교수가 집필한 서적으로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명의로 발행되었다가, 1989년에 수정·증보를 거쳐 『대순종교사상』으로 명칭이 바뀌어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명의로 발행되었다.

42) 처음에는 『대순진리 진수(眞髓)』로 인쇄되었다가, 『대순진리강화 II』로 제목이 변경되어 발간되었다.

43) 『대순회보』 63호(1999) 12면에 『중단 대순진리회』가 1999년에 발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0	大巡真理會要覽	大巡宗教文化研究所	『대순진리회 요람』 증문(간체) 번역판
2010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교단 안내서
2012	典經	大巡宗教文化研究所	『전경』 증문(번체) 번역판
2012	大巡指針	大巡宗教文化研究所	『대순지침』 증문(번체) 번역판
2012	大巡真理會要覽	大巡宗教文化研究所	『대순진리회 요람』 증문(번체) 번역판
2016	Hunshi (Teachings of Dojeon)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⁴⁴⁾	우당 훈시를 영문으로 번역
2018	The Dao Constitution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도헌』을 영문으로 번역
2018	The Temple Complexes of Daesoon Jinrihoe: A Guidebook for Visitors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교단 안내서
2018	Leaflet for Daesoon Jinrihoe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교단 안내서
2018	Explanatory Paintings of the Sacred History of Daesoon: The Supreme God of the Ninth Heaven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대순성적도해요람』 가운데 증산의 행적만 영문으로 번역함
2019	Basic Principles for Propagation and Edification 1 & 2	The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jinrihoe	『포덕교회기본원리』 I, II 영문 번역

이상 <표 1>부터 <표 4>까지의 목록들이 대순사상을 구성하는 자료들이다. 이 외에도 정리 중이거나, 정리가 마무리되어 발간을 앞둔 자료도 있다. 『우당 훈시』(가칭)가 그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자료 목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44) 대순종교문화연구소의 영문 표기.

45) 대순진리회 교무부의 영문 표기.

IV. 달는 글

지난 반세기 사이에 50여 개가 넘는 증산계 교단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교단들이 사라졌다. 과거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지만 새로운 증산계 교단의 등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윤이흠 교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이런 분열이 세계종교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다.⁴⁶⁾ 그에 의하면, 증산계 교단 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신비체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선도를 창시한 안내성, 순천교의 장기준, 삼덕교의 허욱, 동도법종금강도의 강승태, 보화교의 김환옥, 미륵불교의 정수산, 대한미륵불교종의 김계주 등도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교단을 열었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계시의 신성성은 다른 교단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대순진리회도 정산이 증산에게 종통 계승을 계시로써 받아 무극도를 창도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 역시 다른 교단과의 차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전략의 이면에 계시의 신성성이라는 원동력만이 아니라, 교단과 교단 사이에 교리·수행·의례·조직·경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그것을 삼단신앙의 수용과 증산의 신성성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다. 이 지점을 살피지 못하고 호교론, 즉 대순진리회가 증산계 교단의 아류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계시의 신성성을 부각하려고 한다는 의심에 머무를 경우, 증산계 교단 안에 실존하는 다양성은 조망할 수 없게 된다.

증산계 각 교단이 증산에 대한 신앙을 공통으로 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그 모두를 하나의 구덩이에 몰아넣는다면, 개별 교단들의

46)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p.115.

47) 같은 책, pp.115-116, p.164.

고유성은 무시되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묻히게 된다. 개별 교단의 입장에는 연구자의 이런 태도가 폭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어서 학술적이지도 못하다.

증산계 개별 교단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그 자료의 수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개별 교단의 고유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차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등한시하는 자세, 저 교단의 자료를 가지고 이 교단을 설명하려는 자세, 남이 생산한 2차 자료만 활용하려는 자세는 과거 인락의자 인류학이 받았던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 또한 학자의 학술적인 연구 태도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 김방룡, 「증산사상의 연구 동향과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 『대순사상논총』 20, 2009.
-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13.
- 대순진리회 교무부, 「인간이신 증산을 상제님으로 믿는 이유」, 『대순회보』 74, 2007.
-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증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 배용덕·임영창, 『증산사상연구 10: 증산신학개론(중·하)』, 서울: 태광문화사, 1984.
- 윤승용, 「신종교의 경전에 대한 개설」, 『신종교연구』 16, 2007.
- _____, 「서세동점과 동세서점의 차이」, 한국종교문화연구소(편), 『종교문화의 안과 밖』,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21.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 이강오, 「한국 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로장생」,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도교와 한국사상』,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8.
-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대순회보』 109, 2010.
- _____, 「대순진리회의 개혁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 _____,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I)」, 『대순사상논총』 21, 2013.
- _____, 「증산계 일괄 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 _____,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상생의 길』 4, 2016.

- _____,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31, 2018.
- 홍범초, 「도조(道祖) 증산대성(甞山大聖)의 생애」, 『월간 천지공사』 1, 1988.
- _____,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3, 1995.
- Jorgensen, John. “Taesunjillihoe,” In *Handbook of East Asian New Religious Movements*, edited by Lukas Pokorny and Franz Winter, Leiden: Brill, 2018.
- Yongbok, Yoon and Introvigne, Massimo. “Problems in Researching Korean New Religions: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The Journal of CESNUR* 2, Issue 5, 2018.

■ Abstract

Identity of Daesoon Thought and the Problem of Its Research Sources

Cha Seon-keun

Vice Director,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When summarizing a certain topic of Korean new religion, it is still conventional to generalize the case of a certain religious order and describe it. Some of the researchers of Jeungsanism are prone to approaching to explain a religious phenomenon of 'B' order with the sources of 'A' order. Due to this, the problems continues to emerge that the description on Korean new religion or the religious order of Jeungsanism does not reflect the intact condition of religion in real life. The general outline of description on Korean new religion or Jeungsanism would be possible when various ideas from each religious order under its sub-category is apprehended first. Henceforth, the result is integrated. Having critical consciousness,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difference between Daesoon Jinrihoe and other orders of Jeungsanism and affirm the identify of thought of Daesoon Jinrihoe, namely, Daesoon thought.

When some researchers describe Daesoon Jinrihoe, the reason for the utilization of other materials adopted from Jeungsanism instead of the primary sources of the order is perceived as the

doctrine, organization, rituals, and cultivation of Daesoon Jinrihoe are the same or similar with those of Jeungsanism. However, Daesoon Jinrihoe calibrated the system of its thought in the human lineage from Kang Jeungsan, Jo Jeongsan, to Park Wudang. The Daesoon thought, its result, differs to a certain degree from other orders of Jeungsanism in terms of though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se the primary source of Daesoon Jinrihoe in order to explain Daesoon Jinrihoe.

If each order in Jeungsanism confirms that they are all the same religion only because they have faith in Jeungsan in common, the intrinsic nature of each order is neglected and its specific information is unrevealed. As for each order, such attitude of a researcher can be considered violent. In addition, this attitude makes the mistake of hasty generalization so that it is not scientific.

The fact that the order of Jeungsanism is large in number depicts that the practical challenges exist in collecting its sources. However, such difficulty does not guarantee researchers to neglect the intrinsic nature of each order. It is not always easy, but it is necessary to admit their identity and secure their information to the hilt. Indeed, the negligence of the primary sources and its objective analysis, the attitude wherein a researcher explains the source of A order with that of B order, or the usage of only secondary sources produced by others should be criticized as much as anthropology sitting on a comfortable nest of the past was criticized.

Keywords: the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difference, diversity, Daesoon thought, Jeungsan thought, primary source